이슈페이퍼 | 2020 - 03호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 방향과 과제에 대한 지역문화관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

2020.09.16.(수)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Cultural Policies)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와 지역문화 전문가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관적 개방형 질문에 대해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설문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이정숙(E-mail. jls7958@naver.com / Tel. 010-2025-8342)

목 차

Ⅰ. 조사 배경과 목적 ····· 1

Ⅱ. 조사 설계 ····· 3

Ⅲ. 분석 결과 ····· 4
1. 코로나19의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지역문화 환경 변화 전망 ····· 4
2. 긴급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 7
3. 지역문화재단의 위기 대응체계 실태 ····· 9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과제 수요 ····· 10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과제 제안 ····· 11

Ⅳ. 분석결과의 시사점 ····· 14
1. 회복 · 전환 · 혁신의 지역문화정책 체계 설계 ····· 14
2. 지역문화재단의 위기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 14
3.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 데이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 15
4.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재정립 및 법제도 개선 ····· 16
5. 지역문화재단의 지원 정책 방향 및 지원체계 전환 ····· 17
6. 지역문화재단의 디지털 전략 수립 ····· 18

Ⅴ. 조사의 한계 ····· 20

Ⅵ.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활용 ····· 20

Ⅰ. 조사 배경과 목적

지난 8개월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위기는 지역문화예술 현장의 최 일선에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존재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문화 생태계가 창작, 유통, 소비, 예술 경영 등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 및 창작 환경의 열악성과 취약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면대면 기반, 수직적 전달체계 기반의 지역문화정책 체계는 코로나19 환경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정책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어떻게 위기를 진단, 이해하고,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단계에서(2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지역문화재단 또한 위기 대응 정책을 논의하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초부터 광역문화재단의 긴급 대응 전략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문화재단들은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사업예산 조정금 등으로 긴급 대응 자금을 만들었다. 지역문화 위기 대응 TFT를 구성하여 긴급 대응 전략을 협의하는 지역문화재단도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소수가 참여하는 안전한 릴레이 포럼을 열고, 예술계와 소통하는 지역문화재단도 나타났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관행과 형식에 갇혀 있던 지역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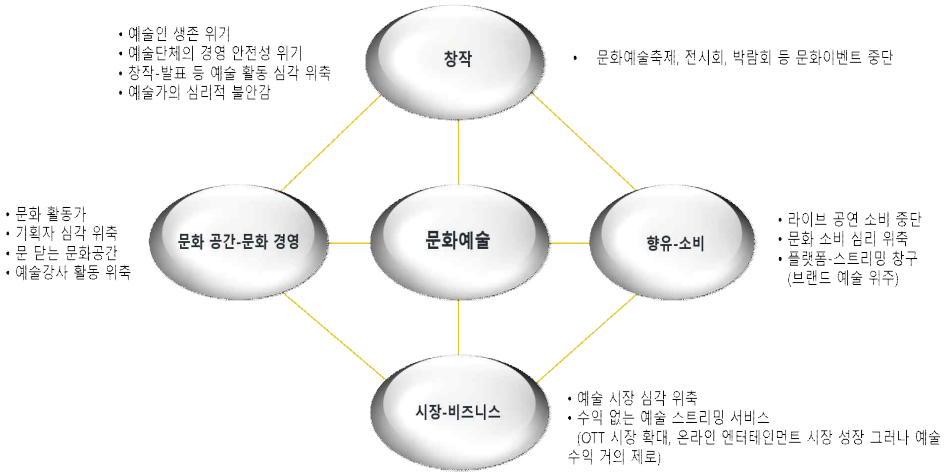
실제로 지역문화재단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상담창구, 피해조사, 공론 ②예술인 생활 안정 ③사업 조정 ④신규 긴급 사업 개발 ⑤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및 서비스 지원 ⑥문화예술조직 및 문화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 추진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 중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예술 아이디어와 기획, 자원조사와 기록, 연구 활동, 예술 조사 및 디지털화, 창작준비금, 예술작품 구입, 크라우드 펀딩 재원 조성 지원 등 사전 창작 및 사후 창작 기반의 지원 사업들은 기존에 창작품(product) 중심의 지원체계를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인들의 창작 및 생계 안전망 이슈가 지역문화재단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 된 점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 방향을 설정할 때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및 서비스 관련 정책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역문화 정책의 디지털 전환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의 위기 대응체계는 단기적 관점에서 긴급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회복과 전환 및 혁신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아직 지역문화 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 조직으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 인력, 지식정보와 데이터, 정책역량, 협력 네트워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그 동안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이슈, 문화 분권 이슈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지원 사업이 국가와 지역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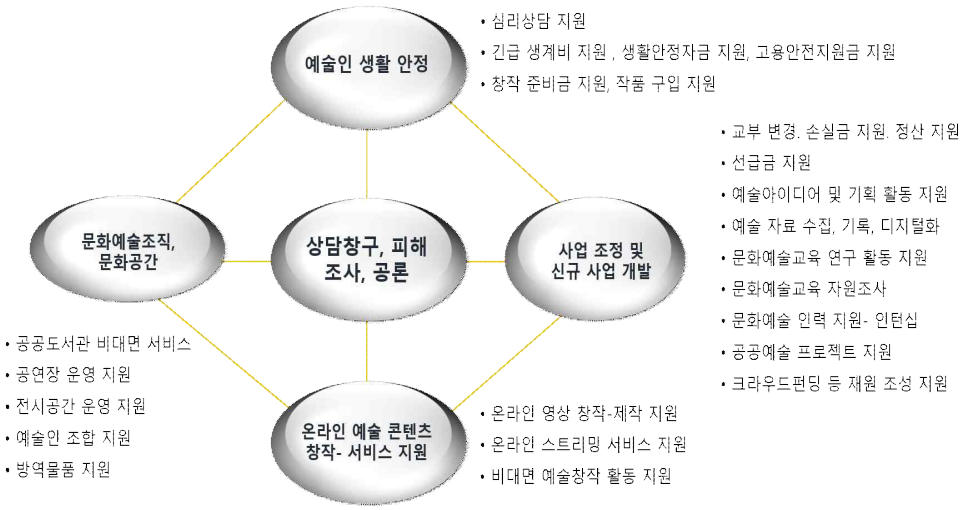
단 차원에서 대폭 확대될 전망이지만, 이를 위한 디지털 기반과 지원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는 코로나19 위기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 과제에 대해 지역문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데 준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1> 코로나19에 취약한 지역문화 생태계 : 초토화, 붕괴, 위기



<그림 2>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화정책 실태



Ⅱ. 조사 설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 연구(2020년 9월 30일 완료 예정)를 진행하면서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와 지역문화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 과제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10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지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총 5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주요 조사 항목은 ①코로나19의 지역문화예술 영향, ②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 환경 변화 전망, ③지역문화예술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정책의 효과성, ④코로나19에 대한 지역문화재단의 위기 대응체계 진단, ⑤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수요 등이다.

<표 2> 설문조사 항목

조사항목	세부 조사 항목
Ⅰ. 코로나19의 지역문화예술 영향	•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19가 지역문화예술생태계에 미친 영향
	•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지역문화 환경변화 전망
Ⅱ. 코로나19 위기 대응	• 지역문화예술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정책의 효과성
	• 코로나19에 대한 지역문화재단 위기대응체계
Ⅲ.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소요기간
	•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역문화재단 정책 과제 수요
주관식 문항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제안

총 273명(지역문화재단 종사자 178명, 지역문화 전문가 95명)이 응답하였다. 유효 응답자는 총 273명으로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178명(65.2%), 지역문화 전문가 95명(34.8%)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응답자 중 '기초문화재단' 소속은 21명(7.7%), '광역문화재단'은 157명(57.5%)이다.

<표 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전체		273(100)
성별	여자	150(54.9)
	남자	123(45.1)
연령	30세 미만	39(14.3)
	30세 이상 40세 미만	105(38.5)
	40세 이상 50세 미만	79(28.8)
	50세 이상	50(18.3)
직업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178(65.2)
	지역문화 전문가	95(34.7)
지역문화재단 유형[1)]	기초문화재단	21(7.7)
	광역문화재단	157(57.5)
지역문화재단 근무 기간[2)]	1년 미만	28(10.3)
	1년 이상 3년 미만	33(12.1)
	3년 이상 6년 미만	31(11.4)
	6년 이상 9년 미만	38(13.9)
	9년 이상	48(17.6)

Ⅲ. 분석 결과

1. 코로나19의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지역문화 환경 변화 전망

1)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가 창작 활동, 예술가 수입, 문화 공간 수입,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등 지역문화 생태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가 창작 발표 활동(공연, 전시, 교육 등)이 크게 감소했다.”가 평균값 4.55로 코로나19가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친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계의 소통과 협력 활동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값이 3.85로 예술 창작 활동과 수입에 관한 질문이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예술 창작과 발표 활동이 제한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문화예술계의 소통과 협력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가 지역문화예술계에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이슈를 제공한 측면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술가의 창작 준비 활동 감소에 대한 인식이 예술가의 창작 활동 감소에 대한 인식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점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의지는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지역 연극단체 대표 인터뷰 결과, 예술 활동은 예술가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공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관한 관심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 및 지역문화재단에서 비대면 상황에서의 문화 활동에 대한 보완 또는 대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한 것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와 플랫폼 정책 사업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책과정을 문화예술계와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와 플랫폼 정책 모델은 지역 문화생태계에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였다”는 질문은 평균 3.5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 온라인 문화예술 정책과 활동들이 지역주민의 온라인 문화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

1)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응답자에 한함.
2)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응답자에 한함.

<표 4> 코로나19 이전 대비 지역문화예술생태계 변화

항목	전체 평균	집단 별 평균 비교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지역문화 전문가	유의확률
예술가 창작 준비 활동(조사연구, 워크숍, 연습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4.03	3.87	4.34	0.000***
예술가 창작 발표 활동(공연, 전시, 교육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4.55	4.42	4.79	0.000***
예술가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4.40	4.30	4.59	0.006**
예술단체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4.46	4.34	4.67	0.000***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생활문화시설 등 민간 예술 공간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4.51	4.46	4.60	-
지역 문화예술계의 소통과 협력 활동이 크게 감소되었다.	3.85	3.72	4.09	0.005**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감소하였다.	4.36	4.24	4.57	0.000***
지역주민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였다.	3.58	3.61	3.53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4.18	4.25	4.04	-

2)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지역문화 변화 전망

첫째, '2021년 이후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역문화예술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예술인 생계 불안정 지속" "온라인 문화 플랫폼 관심 증가"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체계 개편" 등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 창작 안전망 이슈는 코로나 19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문화재단의 긴급 과제로 고려되었으며, 앞으로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지역문화재단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온라인 문화 플랫폼과 예술 · 기술 · 플랫폼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성 맥락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장르, 예술가, 문화예술단체 등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 및 적합성 측면에서 다양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인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역량 또한 정책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을 포함한 언택트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3.77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 온라인 문화소비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설문 항목 응답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결과, 온라인 문화 플랫폼 정책은 지역문화재단의 디지털 전환 맥락에

서 면대면 문화예술 활동과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주관식 개방형 질문에서도 개별 정책 중심의 파편적, 분산적 접근에 대한 우려가 많이 표명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객관식 설문 응답과 주관식 설문 응답에서 모두 앞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소수가 참여하는 수월성 중심의 공모사업 체계, 단년도 사업 중심의 일시성 사업 체계, 정량적 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 지원 서류와 정산의 복잡성 등이 새롭게 개선할 문제로 제시되었다. 결과물 중심의 창작 지원체계 또한 문화예술의 가치 창조체계 전반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둘째,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보다 야외 공연(버스킹 등)이 증가할 것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3.55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에서 "공간"이 주는 본질적 가치에 관한 중요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문화 공간을 어떻게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간"의 문제는 비대면 온라인 문화 플랫폼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관심의 확대될 것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3.48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향후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에 대한 질문 항목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가 활동 다각화 및 예술 협업 활동 지원 사업"의 응답이 평균 4.34로 높게 나온 것과 비교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다소 상반된 응답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맥락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은 크지만, 현재 지역문화 환경에서는 이에 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중에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지역문화 현장에서는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응답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확보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이 확대될 것이다" 응답은 평균 2.78로 보통 수준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문화정책 수요와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예산 확보 가능성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에서 문화예산의 불확실성이 높고, 위기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와 지역문화 전문가 중에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문화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좌절했던 경험들이 문화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에 작용한 측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지역문화 환경변화 전망

항목	전체 평균	집단 별 평균 비교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지역문화 전문가	유의확률
예술인 복지 및 생계 안정 정책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3.94	4.07	3.68	0.001**
다른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파트타임 예술인이 증가할 것이다.	4.22	4.15	4.37	0.037*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3.48	3.48	3.48	-
민간 예술 공간의 경영 안정성에 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3.78	3.82	3.69	-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보다 야외 공연(버스킹 등)이 증가할 것이다.	3.55	3.49	3.65	-
온라인 예술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에 관심 가지는 예술가가 증가할 것이다.	4.41	4.42	4.40	-
온라인을 포함한 언택트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3.77	3.85	3.63	-
예술과 기술, 뉴미디어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4.27	4.33	4.15	0.040*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체계 또는 방식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4.16	4.24	4.01	0.01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이 확대될 것이다.	2.78	2.76	2.83	-

2. 긴급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긴급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을 비교하면 '창작준비지원금'(4.09)과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스트리밍 서비스 지원'(4.07) 사업에 대해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와 영향 조사(3.97), '생계 안정 융자 지원'(3.92), '고용 유지 지원'(3.92), '아이디어 기획, 연구 활동 지원'(3.97), '문화예술 조직의 운영 지원'(3.97)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문화 전문가들이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에 비해 긴급 지원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문화 전문가의 경우, '문화예술 조직의 운영 지원'(4.19), '아이디어 기획 및 연구 활동'(4.18), '창작 준비 지원금'(4.18), '피해와 영향 조사'(4.13), '지원 사업 중단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피해 보상 지원'(4.11),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스트리밍 서비스 지원'(4.08), '연습실, 공연장, 전시실 등 문화예술 시설 사용 지원'(4.1), '고용 유지 지원'(4.1)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와 지역문화 전문가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아이디어 기획 및 연구 활동 지원', '지원 사업 중단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피해 보상 지원',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시설 사용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화예술계 피해 조사와 영향',' 인턴십 등 예술 일자리 지원' 등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문화 전문가들이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에 비해 긴급 대응 전략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과의 논의한 결과, 대응 전략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대응 전략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의 경우, 대응 전략을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수립한 것으로 긴급성과 일시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지역문화 전문가들의 경우, 대응 전략을 새로운 지원 전략 개발과 미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문화 전문가들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상 환경에서도 문화예술 현장을 파악하고, 적실성 높은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기대 또한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지역문화예술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정책의 효과성

항목	전체 평균	집단 별 평균 비교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지역문화 전문가	유의확률
지원 사업 선급금 지급	3.66	3.58	3.82	–
지원 사업 중단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피해 보상 지원	3.85	3.71	4.11	0.000***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시설 사용 지원	3.79	3.68	4.01	0.007**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화예술계 피해와 영향 조사	3.97	3.89	4.13	0.036*
창작 준비 지원금	4.09	4.04	4.18	–
생계 안정 융자 지원	3.92	3.89	3.99	–
고용유지 지원	3.92	3.87	4.01	–
인턴십 등 예술 일자리 지원	3.74	3.64	3.93	0.031*
아이디어 기획, 연구 활동 지원	3.99	3.88	4.18	0.007**
작품 구입 지원	3.75	3.70	3.84	–
문화예술조직(단체, 기관)의 운영 지원	3.97	3.86	4.19	0.003**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스트리밍 서비스 지원	4.07	4.06	4.08	–

3. 지역문화재단의 위기 대응체계 실태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통 또는 그 이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정책역량, 재정확보 등의 측면에서 위기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위기 대응체계의 유연성, 긴급성, 소통과 협력 또한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이 긴급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맥락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아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방형 주관식 설문에서도 많이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지역문화재단의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보다 지역문화재단 외부에 있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재정 확보 체계”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와 지역문화 전문가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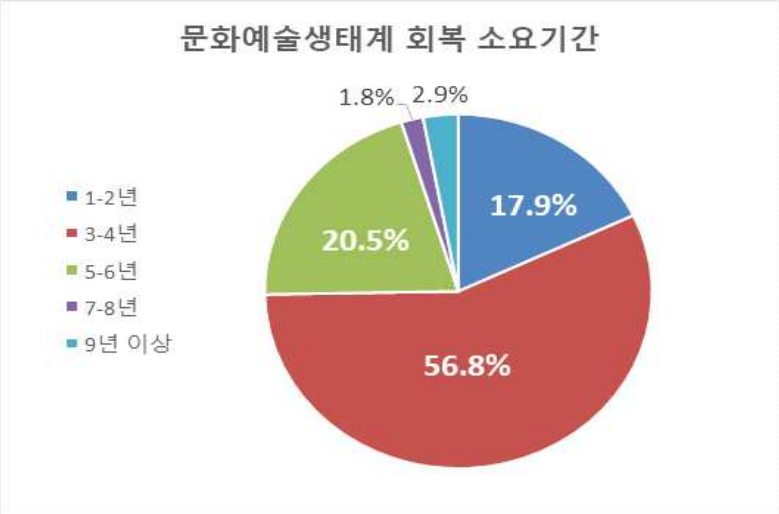
<표 7> 코로나19에 대한 지역문화재단 위기대응체계

항목	전체 평균	집단 별 평균 비교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지역문화 전문가	유의확률
기존 지원정책 관성에 집착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적합한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고 있다.	3.03	3.17	2.75	0.001**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3.24	3.46	2.83	0.000***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은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갖추고 있다.	3.15	3.29	2.87	0.001**
문화예술현장의 의견 수렴을 활발하게 했다.	3.21	3.40	2.85	0.000***
다른 지역문화재단들과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3.09	3.30	2.71	0.000***
데이터(예술인실태, 피해상황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2.67	2.81	2.40	0.001**
위기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확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	2.44	2.49	2.35	–
위기 상황에 적합한 정책 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다.	2.75	2.91	2.44	0.000***
긴급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회복 및 정책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3.07	3.29	2.66	0.000***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과제 수요

첫째,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4년'(155명, 56.8%)이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코로나 위기 대응 전략이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소요기간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 정책과제 필요성을 묻는 문항들 모두 평균 4.1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진이 제시한 총 13개 정책과제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다. 특히,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은 평균 4.53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필요하다(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에 252명(92.3%)이 응답하였다. 뒤이어 '예술인 데이터 등 지역문화예술 데이터 체계 구축'과 '법, 조례, 정관 개정을 통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각각 평균 4.44와 4.43을 기록하여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문화 전문가들이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시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정책에 대한 변화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역문화재단 정책과제 수요

항목	전체 평균	집단 별 평균 비교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지역문화 전문가	유의확률
예술인 복지 및 생계 안정망 구축 정책	4.27	4.16	4.47	0.004**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문화공간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활용 및 운영비 지원 사업	4.14	4.00	4.39	0.000***
미래 창작을 위한 조사연구, 기록, 워크숍, 실험, R&D 등 창작 준비 지원 사업	4.30	4.24	4.41	-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4.25	4.20	4.33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가 활동 다각화 및 예술 협업 활동 지원 사업	4.34	4.26	4.49	0.016*
예술-기술-뉴미디어플랫폼의 연계를 통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구축 정책	4.38	4.39	4.37	–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4.29	4.27	4.33	–
예술인 데이터 등 지역문화예술 데이터 체계 구축	4.44	4.33	4.63	0.000***
온라인 예술콘텐츠 창작 및 유통 서비스 지원	4.29	4.24	4.38	–
다년도 창작 지원 사업 개발	4.42	4.31	4.61	0.000***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4.40	4.32	4.54	0.014*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4.53	4.47	4.63	–
법, 조례, 정관 개정을 통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4.43	4.35	4.57	0.014*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과제 제안

지역문화재단의 향후 과제를 제안해 달라는 주관식 설문 문항에 대해 총 11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제안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예술안정성 ② 지역문화 온라인 플랫폼 ③ 정책지표 및 데이터 체계 ④ 지역문화재단 혁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예술 안정성

예술 안정성 이슈에서는 예술인 복지와 생계 안전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세부 과제로는 예술가 활동 다각화와 예술 협업, 시각지대 예술인 발굴 지원, 기초 생계 보장제도 연구,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복지모델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② 지역문화 온라인 플랫폼

지역문화 플랫폼 이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세부 과제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 예술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예술 플랫폼 기반 조성, 온라인 예술콘텐츠 창작 지원체계 구축, 영상 콘텐츠 창작 스튜디오 조성 및 지원, 기술 및 연구 활동 지원, 저작권 등 법 제도적 보완 등이 제안되었다.

③ 정책지표 및 데이터 체계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는 이와 연관된 정책 지표와 데이터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지역 문화생태계에 대한 조사 연구와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부 과제로는 지역 예술인 데이터 체계 구축, 지역문화생태계 조사 및 기초 데이터 관리, 정책 연구 역량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④ 지역문화재단 혁신에 관한 내용

지역문화재단 혁신 과제는 크게 소통과 공유 및 공동정책 설계, 예술지원 체계 개선, 지역문화재단 문화 행정 전환 등 3가지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통과 공유 및 공동 정책 설계는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소통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책기관과 문화예술 현장의 소통과 협업, 국가의 문화정책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소통과 협업, 지역 내 문화기관 및 연관 조직들과의 소통과 협업이 모두 포함된다. 세부 과제로는 지역문화 현장과의 소통 및 공동대응 체계, 위기 대응 협의체 및 TFT 운영 매뉴얼 개발, 지역문화재단 간 지식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예술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주로 문화예술 활동 지속을 위한 안전체계와 지원체계의 다양성 이슈가 제기되었다. 세부 과제로는 안전한 면대면 예술 활동 환경 조성, 개별 사업보다는 문화생태계에 초점은 지원체계 구축, 주제 및 다년도 기반의 예술지원체계 확대, 민간 공연장 안정성 지원, 수월성보다는 포용성 기반의 지원체계 구축, 마을 단위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개발, 예술융합을 위한 실험 환경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지역문화재단의 문화행정 전환과 관련하여 자율성, 유연성, 혁신성, 수평적 조직 문화 이슈 등의 제기되었다. 세부 과제로는 분권 · 자율성 기반의 위상 정립 및 역할 수행체계 개선, 조직 경영 혁신 및 직원 역량 강화, 위기 대응 및 미래 혁신계획 수립, 사업 평가체계 개선, 광역과 기초 지역문화재단 연계 강화, 지역문화재정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

<표 9>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제안(개방형 질문. 114명 중복 응답)

영역	과제	세부 과제	빈도(%)
예술 안정성	예술인 복지와 생계 안전 시스템 구축	• 예술가 활동 다각화. 예술협업 • 사각지대 예술인 발굴 지원 • 기초 생계보장 제도 •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복지모델 개발	14 (9.2)
지역문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및 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 격차 해소(예술가, 지역주민) • 예술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 • 온라인 예술 플랫폼 기반 조성	20 (13.1)

		• 온라인 예술 콘텐츠 창작 지원체계 구축 • 영상콘텐츠 창작스튜디오 조성 및 지원 • 기술 및 연구 활동 지원 • 저작권 등 법제도적 보완	
정책 지표 및 데이터 체계	조사 연구 및 데이터 체계 구축	• 지역 예술인(직업예술인/생활예술인) 데이터 체계 구축 • 지역문화생태계 조사 및 기초 데이터 관리 • 정책 연구 역량 강화	15 (9.8)
지역 문화 재단 혁신	소통-공유-공동정책 설계	• 지역문화 현장과의 소통 및 공동 대응체계 • 위기대응 협의체 및 TFT 운영 매뉴얼 개발 • 지역문화재단 간 지식정보 공유 체계	15 (9.8)
	예술지원체계 개선	• 안전한 면대면 예술 활동 환경 조성 • 개별 사업보다는 문화생태계에 초점 • 주제 및 다년도 기반의 예술지원체계 확대 • 민간 공연장 안정성 지원 • 수월성보다는 포용성 기반 지원체계 구축 • 마을 단위 커뮤니티 지원사업 개발 • 예술 융합 실험 환경 조성	33 (21.7)
	지역문화재단 문화 행정의 전환 (자율성, 유연성, 혁신성, 수평적 조직경영)	• 분권, 자율성 기반의 위상 정립 및 역할 수행체계 개선 • 조직경영 혁신 및 직원 역량 강화 • 위기 대응 및 미래 혁신계획 수립 • 사업 평가체계 개선 (정량->정성) • 광역과 기초 지역 연계 강화 • 지역문화재정 확충	55 (36.2)
계			152 (100)

Ⅳ. 분석결과의 시사점

1. 회복 · 전환 · 혁신의 지역문화정책 체계 설계

코로나19 위기는 지역문화재단의 경영, 조직구조, 조직문화, 정책사업, 제도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 지역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역문화 영역별로 세분화된 개별 사업 중심에서 지역문화 생태계의 회복, 지역문화 생태계의 창작안전망과 지속가능성, 지역문화 생태계의 소통과 협력 등 지역문화 생태계 맥락에 초점을 둔 총체적인 정책 체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면대면 중심의 지역문화 정책 패러다임은 면대면과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연계와 통합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디지털 전환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지역문화 생태계의 취약한 현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지역문화 예술이 코로나19로 인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한 단계 더 깊게 관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화 생태계의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전환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문화재단의 위기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지역문화재단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역문화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역문화재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협력자로서 역할 뿐 아니라 지역문화 생태계의 생존을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의 긴급 대응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설문조사 결과, 지역문화재단의 위기 대응체계는 유연성, 신속성, 소통과 협력, 재정조달, 정책 기획력,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으로 감염병과 같은 위기의 일상화가 예상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지역문화재단의 위기 진단 및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지역문화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기관리 본부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위기에 따른 지역문화 영향 조사, 위기 단계와 유형에 따른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 수립 및 추진. 위기 상황 관련 정보 소통과 공유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기대응체계는 지역문화예술계와의 소통과 협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계가 위기 대응 정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은 위기 대응 정책 데이터 생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코로나19 영향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지만, 예술인 피해에 한정하여 1· 2회 조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았으며, 조사 결과의 공유 및 활용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범주는 창작, 유통, 소비, 예술 경영, 문화예술 연관 산업 영역 등 지역문화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데이터조사 방법 또한 단기·중기·장기, 긴급·일반, 자체조사·조사 용역조사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위기 대응 긴급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문화 생태계 관계자 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과의 적실성(relevance) 있는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 강화 필요성이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문화 분권,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의 이슈들과 함께 지역문화재단의 형성, 발전과정에서 줄기차게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로 정책연구 조직과 인력 체계를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지역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지역문화 환경과 생태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실성 있는 지역문화 정책들을 다각도로 연구, 개발할 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은 정책 연구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서 기획경영·정책연구·사업부서의 유기적 연결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연구 부서는 지역문화예술계와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위기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데이터 산출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 데이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지역문화재단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책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지역예술인에 관한 창작 및 생계 안전망과 연관된 정책 사업들이 긴급 위기 전략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매우 미흡했기 때문이다. 지역예술인의 전체 규모, 예술인 분류와 유형, 예술인 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 지역예술인들의 특성과 활동 실태, 문화예술단체 등에 관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과 연관된 산업,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지역예술인들의 협업 및 융합 활동 등에 관한 자료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자료는 지역문화재단에서 정책 지표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예술인 및 문화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지역문화재단 사례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데이터 수집, 분석, 공유,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데이터의 범주에는 지역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단체, 문화 공간, 문화 인력, 기술 자원, 문화예술 연관 산업,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등

지역 문화생태계 전반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이러한 데이터를 외부 조사연구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문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들과 협의하여 지역예술인 데이터 등록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예술인 데이터 등록제도란 지역예술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기본 정보(예술 분야, 고용형태, 예술 활동 등)를 자발적으로 지역문화재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4.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재정립 및 법제도 개선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위상과 역할 기대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율성, 유연성, 소통과 혁신 네트워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주관식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의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자치 분권의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중앙 차원에서는 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적실성 있는 위기 대응 전략을 개발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분권과 협력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문화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지역문화진흥조례, 예술인복지 조례 등)에 지역문화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조례에는 ①위기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긴급 구호 및 지원 근거 규정 ②지역문화 위기 대응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문화 위기 본부 설치 운영의 근거 규정 ③긴급 지역문화재정 확보 및 활용의 근거 규정 ④위기 정책 지표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긴급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지역문화재단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지원 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역문화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지역문화재단들이 많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확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역문화진흥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부를 긴급 지역문화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거나 별도의 긴급 지역문화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문화재단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지역 가치의 시대 등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섯째, 지역문화재단의 조직문화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지역문화재단의 조직 문화가 유연하고, 수평적이며 창의적인 정책실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5. 지역문화재단의 지원 정책 방향 및 지원체계 전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술인 복지와 생계, 문화예술단체와 문화 공간 경영의 안정성, 지역문화 생태계의 소통과 혁신 네트워크 환경 등 지역예술인의 창작 안전망과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지역문화재단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방향과 지원체계에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수의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수월성 중심의 지원체계와는 달리 다수의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가치 창조체계 측면에서는 기존의 창작품(products) 제작 중심의 지원체계를 사전 준비, 사후 지원 등 가치 사슬 전반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또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지역문화재단의 대응 전략들을 살펴보면, 아이디어 상상, 연구, 지역자원조사, 리소스 발굴 등 창작 이전 단계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개발되었고, 작품 구입 지원과 같이 사후 지원 사업 또한 추진되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가치 창조 체계를 고려한 지원정책들은 앞으로도 지속 발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문화재단은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활동 영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지원체계는 창작준비금, 공간지원, 공간 임차료 지원, 생계지원 등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술인 활동의 범주를 예술 창작 활동뿐 아니라 연구자, 기록자로서의 예술 활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조사, 기록, 연구하는 활동은 지역 문화자원의 아카이빙 차원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리소스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재난 기본소득 기준을 산출하고, 위기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은 사회 회복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예술적 성찰과 통찰, 코로나19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프로젝트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세계 시민 윤리, 문화 다양성, 소통과 공유와 협력 문화, 지구 환경 리터러시 등의 이슈들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은 예술 돌봄, 예술치유, 예술놀이 등 삶의 파트너로서의 예술가 참여 프로젝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예술가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연결하기 위한 문화예술 인력 인턴십 및 배치 지원 사업 또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가치 창조 체계 기반의 지원체계를 다각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은 창작 준비 조사 연구, 창작 리소스 개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 조사연구 · 창작워크숍 · 창작 및 발표 연계 유형의 다년도 지원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사회 연계 기반의 예술 협업, 예술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공공 · 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생활 밀착형 지역문화 거점을 다양한 형태로 조성하여 예술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예술인과 지역 인적자원의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문화재단은 위기 상황 맥락과 적합한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정성적 성과관리 방법론과 연구용역 사업과 같이 정산을 하지 않는 지원 프로젝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6. 지역문화재단의 디지털 전략 수립

코로나19 위기는 지역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비대면 상황과 온라인 연결 상황을 중요한 문화정책 사업 맥락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하반기와 2021년도에는 온라인 문화정책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정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정책 관행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정책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역문화정책의 디지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현장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술 장르에 따라, 그리고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따라 기술과 미디어 플랫폼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과 기술 및 플랫폼의 관계에 관한 논의와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 특성을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디지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은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략에는 ①기획 및 경영, 조직, 인력 등 총체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 ②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지원 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③오프라인 문화예술과 온라인 문화예술의 연결 및 통합 체계 구축 ④지역 문화예술 · 기술 ·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구축 ⑤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 역량 강화 ⑥디지털 전환에 따른 문화예술 데이터 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지역문화재단은 온라인 예술 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인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지역예술인의 온라인 예술창작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②지역 문화예술 인력의 디지털 전환 수요와 역량 조사 ③지역 문화예술 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④지역주민들의 Digital Literacy 제고 및 이를 통한 그들의 향유자 및 세미창작자로서의 역량 지원 등의 이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생태계의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지역문화기반시설의 온라인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②예술 인력과 시민의 저작권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디지털 데이터와 리소스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구축 ③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정책 지원(창작+마케팅+플랫폼 활용+기술지원 등) ④디지털 스튜디오 공간, 장비 조성 또는 공유 환경 조성 ⑤온라인 예술콘텐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체계 구축 ⑥문화예술 온라인 미디어 활용 지원센터 운영 등의 이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문화재단은 장기적으로 예술· 기술 ·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예술가, 연구자, 기술전문가의 협업 문화 발전 ②예술· 기술·미디어 융합 R&D Labs 활성화 ③예술 · 기술 ·미디어 소통 포럼 운영 등의 이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Ⅴ. 조사의 한계

이번 설문조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할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정책 맥락과 사업의 유형, 지역 문화생태계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본 설문조사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와 지역문화 전문가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집단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지역문화 전문가 집단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문화재단의 중요한 정책 대상 집단인 문화예술인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는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과 지역문화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Ⅵ.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활용

연구결과는 현재 한국광역문화재단 지역문화정책연구소가 연구하고 있는『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연구 보고서(2020년 9월 완료)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를 통해 지난 5월 16일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이슈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 19의 위기와 그 영향을 회복하고, 정책 전환과 혁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의미 있는 과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대해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1일 ~ 2020년 8월 21일

수행기관 :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연구원 : 이정숙 Tel. 010-2025-8342 / E-mail. jls7958@naver.com

응답자 특성

1.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2. 연령(만 연령 기준)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 40세 미만
③ 40세 이상 50세 미만 ④ 50세 이상

3. 귀하의 주된 소속 및 활동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② 지역문화 전문가(ex. 예술가, 예술경영가, 문화기획자, 연구자, 교수 등)

3-1) “①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에 응답한 경우, 어느 유형의 지역문화재단에 해당합니까?

① 기초문화재단 ② 광역문화재단

3-2) “①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에 응답한 경우, 지역문화재단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6년 미만
④ 6년 이상 9년 미만 ⑤ 9년 이상

Ⅰ. 코로나19의 지역 문화예술 영향

Ⅰ_1. 다음은 코로나19가 지역문화예술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Ⅰ_1_1.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술가 창작 준비 활동(조사연구, 워크숍, 연습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_1_2.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술가 창작 발표 활동(공연, 전시, 교육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_1_3.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술가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_1_4.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술단체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_1_5. (코로나19 이전 대비)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생활문화시설 등 민간 예술 공간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_1_6. (코로나19 이전 대비) 지역 문화예술계의 소통과 협력 활동이 크게 감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Ⅰ_1_7. (코로나19 이전 대비)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_1_8. (코로나 19 이전 대비) 지역주민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_1_9. (코로나 19 이전 대비)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Ⅰ_2. 향후(2021년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예술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평가 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Ⅰ_2_1. 예술인 복지 및 생계 안정 정책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_2_2. 다른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파트 타임 예술인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_2_3.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_2_4. 민간 예술 공간의 경영 안정성에 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_2_5.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보다 야외 공연(버스킹 등)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_2_6. 온라인 예술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에 관심을 갖는 예술가가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_2_7. 온라인을 포함한 언택트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_2_8. 예술과 기술, 뉴미디어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_2_9.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체계 또는 방식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Ⅰ_2_10.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이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Ⅱ. 코로나19 위기 대응

Ⅱ_1.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화예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긴급 대응 전략들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평가 요소	전혀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	보통 이다	효과적 이다	매우 효과적 이다
Ⅱ_1_1. 지원 사업 선급금 지급	①	②	③	④	⑤
Ⅱ_1_2. 지원 사업 중단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피해 보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_1_3.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시설 사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_1_4.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화예술계 피해와 영향 조사	①	②	③	④	⑤
Ⅱ_1_5. 창작 준비 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Ⅱ_1_6. 생계 안정 융자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_1_7. 고용유지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_1_8. 인턴십 등 예술 일자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_1_9. 아이디어 기획, 연구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_1_10. 작품 구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_1_11. 문화예술조직(단체, 기관)의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_1_12.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스트리밍 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Ⅱ_2. 다음은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주십시오.

평가 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Ⅱ_2_1. 기존 지원정책 관성에 집착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적합한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_2_2.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①	②	③	④	⑤
Ⅱ_2_3.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은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_2_4. 문화예술현장의 의견 수렴을 활발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Ⅱ_2_5. 다른 지역문화재단들과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_2_6. 데이터(예술인실태, 피해상황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_2_7. 위기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확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_2_8. 위기 상황에 적합한 정책 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_2_9. 긴급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회복 및 정책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Ⅲ_1.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2년 ② 3-4년 ③ 5-6년 ④ 7-8년 ⑤ 9년 이상

Ⅲ_2. 앞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지역문화재단 정책 과제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 과제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요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Ⅲ_2_1. 예술인 복지 및 생계 안정망 구축 정책	①	②	③	④	⑤
Ⅲ_2_2.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문화공간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활용 및 운영비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Ⅲ_2_3. 미래 창작을 위한 조사연구, 기록, 워크숍, 실험 활동, R&D 등 창작 준비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Ⅲ_2_4.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②	③	④	⑤
Ⅲ_2_5.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가 활동 다각화 및 예술 협업 활동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Ⅲ_2_6. 예술-기술-뉴미디어플랫폼의 연계를 통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구축 정책	①	②	③	④	⑤
Ⅲ_2_7.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①	②	③	④	⑤
Ⅲ_2_8. 예술인 데이터 등 지역문화예술 데이터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Ⅲ_2_9. 온라인 예술콘텐츠 창작 및 유통 서비스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Ⅲ_2_10. 다년도 창작 지원사업 개발	①	②	③	④	⑤
Ⅲ_2_11.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①	②	③	④	⑤
Ⅲ_2_12.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①	②	③	④	⑤
Ⅲ_2_13. 법, 조례, 정관 개정을 통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Ⅳ.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이 꼭 추진해야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http://nafac.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에 있습니다.